

길어진 ‘선택과 결단’...장고 끝 묘수? 악수?



양현종

박찬호 두산行이여 한승택도 kt行...KIA, FA “고삐를 죄라”

에이스·불펜·베테랑 ‘남은 카드 4장’...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예산·전력·시장’ 3요소 저울질 ‘가을야구 밑그림’ 총체적 구상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가 두 번째 장을 넘겼다.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으로 첫 장이 열렸다면, 이번 2차 드래프트는 그다음 흐름을 이어가는 장면이었다.

KIA는 지난 19일 열린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투수 이태양과 내야수 이호연을 지명한 뒤, 전력 보강에 일정 부분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번 선택은 전면 재편이 아니라, 내년 시즌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 가깝다. 아직 팀의 핵심들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결국 시선은 다시 FA로 향한다.

KIA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전력 구조상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이태양 영입은 불펜 운영에 분명 안정감을 더해주는 카드다.

경험 많은 즉시 전력 투수가 한 칸을 메웠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조상우·이준영의 FA 계약 흐름을 뒤흔들 만한 변수로 보긴 어렵다. 조상우는 여전히 필승조의 중심축이고, 이준영은 리그 전체에서 희소성이

높은 좌완 불펜 자원이다. 둘의 전력 가치와 시장 수요는 이태양과 전혀 다른 층위에 있다. 구단이 이태양을 품었다고 해서 “급한 불이 꺼졌다”, “대체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즉시 전력 보강은 맞지만, FA 협상의 우선순위나 구조를 바꿀 결정적 조각은 아니라는 의미다.

3라운드에서 이호연을 선택한 것 역시 내야 뎀스 확보 차원이다. KIA는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으로 내년 시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를 대비해 백업 자원을 확보하며 수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했다. 내부 자원(김규성·박민·정현창·김도영)과 외부 보강(아시아쿼터·트레이드) 사이에서 구단이 선택지를 넓히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힌다.

2차 드래프트가 끝나면서 스토브리그의 무대는 다시 FA로 돌아간다.

팀의 상징성과 전력 비중이 높은 최형우·양현종, 즉시 성적과 직결되는 불펜 조상우와 좌완 이준영이 있다.

KIA는 이번 겨울 남은 4명에 대한 결정을 한꺼번에 내려야 한다.

이 선택은 단순 재계약이 아니다. 예산·전력·시장의 3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판단이다. 내년 가을야구를 바라보려면 “누구를 지킬지”, “어디까지 감당할지”, “어떤 순서로 결단을 내릴지” 이 3가지가 동시에 정리돼야 한다.

여기에 FA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팬들도 무시할 수 없다. 박찬호를 붙잡는 데 실패하면서, 구단의 노력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백업 포수 한승택의 kt행이 확정되면서, KIA의 선택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이태양과 이호연 지명은 FA 협상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구단이 뎀스를 먼저 정리하며 협상 환경을 안정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급한 구멍을 메웠다는 안도감은 있지만, 핵심 FA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스토브리그의 향방은 FA 테이블에서 결정된다. 2차 드래프트에서 시작된 변화는 팀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실제 구단의 방향은 FA 협상과 아시아쿼터 활용, 외국인 선수 구성에서 정해진다.

이제 다음 장을 넘겨야 한다. 누구 먼저 잡을지, 어디서 힘을 뻗을지, 어떤 균형을 택할지가 이 겨울을 가른다. 주전 유격수 이적이라는 전력 손실을 겪은 만큼, 선택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KIA의 계산기는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홍철 기자



최형우

‘뜨거운 팬心’ 보답...유종의 미 거둔다

광주FC, 내일 울산HD와 홈 폐막전
코리아컵 모의고사 “준비는 끝났다”

광주FC가 올해 마지막 홈경기에서 화끈한 승리를 예고했다.

광주는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7라운드 울산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올 한 해 광주는 시즌 초반부터 K리그1, AFC 챔피언스리그(ACLE), 코리아컵을 병행하며 숨 가쁜 1년을 보냈다.

광주는 3년 연속 K리그1 잔류라는 소기의 목표에 도달했으나, 시즌 말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광주는 구단 역사상 첫 코리아컵 우승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일 제주SK FC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잔류를 확정지은 광주는 본격적인 코리아컵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울산은 코리아컵까지 단 두 번의 공식 경기를 남겨둔 광주에게 최고의 스파링 상대가 될 수 있다.

비록 올 시즌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전 포지션에 걸쳐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한 만큼, 전북전을 대비해 그간 갈고닦은 전술을 실험하고 객관적인 저력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다.



광주FC 프리드온슨이 지난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FC SK와의 경기에서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에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A매치 휴식기를 보내며 울산전 준비에 열을 올렸다. 특히 홈 폐막전인 만큼 올 시즌 광주를 지지해 준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구단 역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홈 전 좌석 입장권

(원정석 제외)을 40% 할인하며, 수능을 마친 수험생은 1천원에 입장 가능하다. 또한 핫팩 3천개를 준비해 증정할 예정이다.

경기장 외부에서는 대학생 마케팅 ‘엘리트’가 마지막 해피엔딩을 위해 준비한 ‘엘리트 엔딩 페어’, 와플대학 홍보 부스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강진서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열린다

21-23일, 전국 105개 클럽 참가 농구 등 10개 종목 열전

‘생활스포츠 메카’로 떠오른 강진군에서 전국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인들이 우정과 화합을 다진다

전남도체육회는 20일 “예비, 지정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전국 105개 클럽이 참가하는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이 21일부터 23일까지 강진군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은 전국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장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 스포츠클럽 축제다.

이번 교류전에는 농구·댄스스포츠·배구·배드민턴·수영·야구·체조·축구·탁구·테니스 등 10개 종목이 운영된다.

12세 이하부터 일반부, 시니어부까지 다양

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해 세대간 소통과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스포츠클럽간 교류를 촉진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전국체육대회,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3대 메이저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전남은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까지 개최하며 스포츠 마케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전국 스포츠클럽의 역량을 한데 모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달 25일 동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전’ 준경기 대회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참가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청소년 클럽대항전 성료

초·중·고 1천100여명 참가...줄넘기·티볼·플로어볼대회 열려

광주시체육회가 빛고를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와 활기찬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2025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동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줄넘기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북구 첨단체육관에서 열린 티볼대회, 16일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플로어볼대회가 참가 학생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전은 매년 열리는

대회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종목인 줄넘기, 티볼, 플로어볼 종목으로 선정해 개최했다.

올해는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생 1천100여명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발휘했고, 경기종목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진행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경기 참여를 통해 건강증진 및 교우활동 개선 등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클럽대항전에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종목 확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일선 현장 실무역량 강화

시·군지회 예산교육 워크숍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21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장애인체육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예산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예산교육은 보조금통합포털 사용자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강의와 사례 공유가 진행됐으며, 신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병행해 참여자들이 업무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활용법을 숙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시·군장애인체육회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 일원화를 도모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실무자 교육을 시작으로 도내 경기가맹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예산 및 법정업무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경기가맹단체 실무자들이 실질



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애인체육 행정환경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지회 실무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산 집행과 행정운영의 핵심 역량을 함께 배우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전남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